



또... 김선빈 '부상의 늪'



LG전 수비 도중 허벅지근육 이상... 휴식 차원 엔트리 말소
6월 10일 첫 부상 후 재활-복귀-부상 악재 반복
류지혁도 복귀 준비중 또 부상... 내야수 박민, 첫 1군 테스트

김선빈이 또 엔트리에서 빠졌다. 세 번째 부상이다. KIA 타이거즈는 12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 앞서 엔트리에 변화를 줬다. 내야수 김선빈이 빠지고 '고졸 루키' 내야수 박민이 대신 자리를 채웠다. 이번에도 부상이 김선빈 말소의 이유다. 전날 수비 도중 슬라이딩을 하면서 햄스트링 쪽에 불편한 느낌이 들었고, 휴식 차원에서 말소가 결정됐다.

김선빈은 지난 6월 10일 햄스트링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전날 KT위즈와의 원정경기에서 주루 도중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고, 검진 결과 왼 허벅지 근육통 진단을 받았다. 재활 후 6월 23일 엔트리에 복귀했지만 7월 5일 다시 김선빈이 주저앉았다. 이날 NCD이노스와의 원정경기에서 톱타자로 나선 김선빈은 첫 타석에서 앰블런스에 실려 나갔다.

2루 땅볼을 친 김선빈은 베이스를 밟고 있던 1루수 강진성의 발에 걸려 넘어졌고,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김선빈은 다음 날 오른쪽 발목 타박상과 왼쪽 대퇴이두근 염좌 진단을 받았다. 이번에는 복귀에 시간이 더 소요됐다. 7월 31일야엔트리에 재등록된 김선빈은 8월 1일 롯데전을 통해 복귀전을 치렀다. 재활 뒤 실전 없이 바로 복귀했던 김선빈의 성적은 좋지 못했다. 11일 경기 전까지 7경기에서 27타수 4안타, 0.148의 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초반 수비에서도 실수가 이어졌다. 하지만 11일 LG원정에서 김선빈이 모처럼 진가를 발휘했다. 이날 톱타자 겸 2루수로 선발출장한 김선빈은 첫

타석 내야안타를 시작으로 3개의 안타를 몰아쳤다. 첫 타석에서 득점하며 선제점을 만들었고, 4번째 타석에서는 선두타자로 나와 좌측 2루타를 때리며 KIA 대공세를 서막을 열었다. 이 이닝에서 대거 6점을 뽑아낸 KIA는 6이닝 1실점의 패투를 선보인 양현종의 호투를 더해 8-4 승리를 거뒀다. 또 KIA는 이 승리로 지난해 7월 27일 두산전부터 시작했던 잠실 11연패를 끊어내기도 했다. 김선빈이 드디어 제 몫을 해주며 승리를 만들었던 만큼 다시 찾아온 부상이 아쉽다. 류지혁의 복귀 과정도 올스톱 됐다. 지난 6월 16일 왼쪽 대퇴 이두근 파열로 재활에 돌입했던 류지혁은 지난 9일 롯데전을 통해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7회말 대타로 나선 류지혁은 한 타석만 소화했다. 부상 부위 위쪽 근육에 멍침 증

상과 미세 손상이 생기면서 류지혁의 복귀 시계는 처음으로 돌아갔다. 한편 김선빈을 대신해 '부상'에서 회복한 신인 박민이 기회를 얻었다. KIA의 2차 1번 지명 선수로 입단한 박민은 홍종표와 함께 캠프에 참가해 윌리엄스 감독의 눈도장을 받은 기대주다. 자신의 주포지선인 유격수 자리와 2루는 물론, 팀의 약점인 3루수 자리에서도 수업을 받으며 풀업 1순위로 꼽힌 선수였다. 하지만 박민은 지난 5월 27일 익산구장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퓨처스리그 경기 도중 투수의 공에 얼굴을 맞아 안와골절 부상을 입었다. 7월 16일 상무와의 경기를 통해 그라운드로 복귀한 박민은 12일 처음 1군에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



'첫 QS' 류현진, 9회말 2사에 날아간 2승

토론토 홈 개막전 6이닝 1실점
탈삼진 7개·피안타 2개 호투
마무리 앤서니 배스, 동점 허용
마이애미에 연장 10회 끝내기 승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홈 개막전'에서 시즌 첫 퀄리티스타트(QS·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에 성공했지만 구원진 난조로 아쉽게 승리를 날렸다. 류현진은 12일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살렌필드에서 열린 2020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4번째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아내고 안타 2개와 볼넷 2개를 내줘 1실점 했다.

류현진은 0-1로 뒤진 6회말에 터진 보 비넷의 역전 스리런 홈런에 힘입어 승리투수 요건을 안고 팀이 3-1로 앞선 7회초 라파엘 돌리스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이후 토론토는 7회말 추가점을 뽑아 4-1로 앞섰지만 경기 종료까지 아웃카운트 1개를 남겨두고 동점을 허용했다. 마무리 투수 켄 자일스의 부상으로 대신 뒷문을 맡은 앤서니 배스가 9회초 2사 1·3루에서 프란시스코 세르벨리에게 동점 3점 홈런을 얻어맞았다. 류현진의 시즌 2승도 함께 날아갔다. 류현진은 올 시즌을 앞두고 토론토와 4년 8000만달러에 대한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했으나 첫 2경기에서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강판해 1패, 평균자책점 8.00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남겼다. 하지만 지난 6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상대로

5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고 이날 홈 개막전에서 올 시즌 첫 퀄리티스타트를 달성하며 우려를 확실하게 씻어냈다. 류현진은 비록 볼펜이 무너져 승리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에이스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에 의미를 뒀다. 시즌 평균자책점도 5.14에서 4.05로 크게 떨어뜨렸다. 시즌 전적 7승 3패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깜짝' 선두를 달리며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마이애미 타선은 끈질긴 승부로 류현진을 괴롭혔다. 주심의 다소 좁은 스트라이크존과 수비 실책까지 더해져 류현진은 초반 투구 수가 많았으나 중반을 넘어가면서 투구 수를 줄이며 올 시즌 들어 가장 긴 이닝을 막아냈다. 토론토의 뒤늦은 홈 개막전이자 역사적인 살렌필드 개장 경기라서 더욱 의미가 큰 호투였다. /연합뉴스

광주 FC '진짜' 전용구장시대

'K리그1' 16일 홈에서 강원전
개최 승인 후 첫 경기·첫 관중석 개방

광주FC의 '진짜' 전용구장시대가 열린다. 광주는 오는 16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강원 FC와 2020 K리그1 16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홈팬들 앞에서 처음 치르는 관중 경기이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경기 개최 승인 후 치르는 '진짜' 개최 경기다. 광주는 지난 7월 25일 수원삼성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13라운드 홈경기를 치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 경기를 조건부 승인했다. 실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들을 실제 경기를 통해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 경기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시설점검을 통해 2020시즌 잔여 경기의 광주축구전용구장 개최여부를 최종 승인한다는 방침이었다. 연맹이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의 K리그 경기 개최 승인을 하면서 광주는 본격적인 전용구장 시대를 열게 됐다. 그리고 앞선 수원삼성과 달리 이번 경기에서는 비어있던 관중석이 채워지게 된다. 5월 8일 '무관중'으로 개막한 K리그는 지난 1일부터 관중석을 개방했다. 경기장 수용 인원의 10% 범위에서 관중입장이 시작됐고, 14일부터 관중 입장이 25%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만 석 규모의 광주축구전용구장에는 최대 2500명 가량의 팬들이 찾아 광주축구를 만끽

할 수 있게 됐다. 광주는 강원전에 홈경기 10주년 기념 유니폼을 착용하면서 관중경기의 의미를 더할 방침이다. 광주는 개장 경기였던 수원전에서만 10주년 기념 유니폼을 착용할 예정이었지만, 관중 입장이 허용되면서 강원을 상대하는 홈경기에서 한 번 더 유니폼을 선보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기념 유니폼 추가 등록을 마쳤고, 연맹의 승인을 받았다. 10주년 기념 유니폼은 팬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선정한 유니폼인 만큼 새 구장을 찾는 광주팬들에게는 더 의미 있는 경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는 올 시즌이 끝난 뒤 관중 편의를 위한 노력도 더할 방침이다. 모든 좌석의 관중이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건물을 건립하고, 일반석 관중을 위한 자봉을 설치하는 등 개보수 작업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